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정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이사 22,19-23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후렴) 주님, 당신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의 신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앞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 로마 11,33-3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6,13-20

영성체송 |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성가 | 입당 59 예물준비 218(220)
영성체 156(157) 파견 28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이남석 베드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조경형 대건안드레아의 안식을 위하여

- 황서진 소피아 기일(3주기)
- 문영현 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Francisco Correa Cordero
- 임판례 영혼을 위하여

생미사 지향

- 이장학 토마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조이화 헬레나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 정지우 유스티노 & 윤순근 바오로 축일
- 박정자 로사 외 모든 로사 축일 축하
- 김지현 스콜라스티카 생일 축하
- 백이백 아오스딩 생일&축일 축하
- 진승환 토마스모어&김수현 실비아 결혼 축하
- 양미숙 마리아 영육 건강 축복 위하여
- 김승한 어거스틴 영육 건강을 위해
- 금상연 건강과 안정
- 하늘처럼 성가대 평화와 행복을 위해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8월 23일	김진섭	강호영	전푸름	강호영 전푸름	이정현 백이백	김도이 김도율
8월 30일	국민준	정은철	이경자	정은철 이경자	이영혜 정다경	김민서 최예준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 오늘 2차 헌금 있습니다.

* 8/24(월)-29(토)까지 이웅희(루카) 신부님의 휴가로 성사와 관련된 업무는 8/30(주일)부터 가능합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7년 달력 광고비 납부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광고를 신청하신 분들은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신청 마감: 8월 30일(주일)까지

광고게재비: \$200 납부처: 재무 데스크

*광고가 확정된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seoulsb@gmail.com(Sr. 마리루시)로 보내 주십시오.

2026년 사목회 & 각 단체장 간담회

일시: 8월 30일(주일) 11:00AM-2:00PM(간단한 점심 제공)

장소: 산 다미아노 홀

참가자: 사목회 위원, 각 단체장

함께하는 성경읽기: 마르코복음

기간: 9/8(화) - 12/8(화)

시간/장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층 회의실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담당: Sr. 마리루시

신청마감: 8월 30일(주일)까지. 선착순 마감(12명)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2026년 하반기 청년피정

주제: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일시: 9/18(금) - 9/20(주일) (2박 3일)

장소: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참가비: \$330

신청마감: 8월 30일(주일)까지

문의사항: 929-660-4456(청년분과장 진현종 빈첸시오)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희망자 모집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8월 30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월 13일- 2027년 3월 29일

시간/장소: 1:00PM-2:30PM,

프란시스룸(본당행사일정에 따라 장소 변동 가능)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양식신청 및 제출 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 세례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견진성사를 이미 받은 분들 중 대부/대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646-832-7397(Sr. 마리루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6년 청년성서 가을학기 모집

(주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 받은 청년

신청 마감: 9월 13일(주일)까지

첫모임: 9/27(주일) 12:00PM, 프란시스룸

문의: 714-809-9874. 카톡 sunwouk

(대표봉사자 유선욱 베로니카)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예물 봉헌

9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과 부모, 형제, 친척, 은인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는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양식서>를 작성하고 접수(연령회)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위령미사 : 9/27(주일) 9:15, 대성전

오늘의 말씀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최봉한 프란치스코
(1785-1815)

최봉한 프란치스코(1785~1815)는 충청도 홍주 다래골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친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며 신앙을 키웠다. 공주 무성산으로 이주한 뒤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찾아 한양으로 올라가 성사를 받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집에서 황사영 알렉시오, 최필공 토마스 등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 갔다.

그러던 가운데 모친이 사망하자

평생 동정을 지키며 살려 했으나 친척들의 권유로 서석봉 안드레아와 구성열 바르바라의 딸과 혼인하였고, 이후 가족들을 데리고 장인 부부와 함께 경상도 청송 노래산 교우촌에서 생활하였다. 1815년 부활 대축일, 노래산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체포된 그는 동료들에게 "문초를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말해 더욱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경주 감옥에서는 신앙이 흔들리던 장모를 끊임없이 권면하였고, 자신은 형벌 가운데에서도 항상 겸손하고 깨끗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대구로 이송된 뒤에는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극심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였다. 결국 1815년 음력 5월경 옥중에서 계속되는 형벌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97, 가해, 2026. 08. 23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의화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사도행전 다음에는 서간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바오로 사도의 이름으로 된 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 베드로 등 다른 사도의 이름으로 된 서간들이 있지요. 이 서간 각각의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 작성 순서는 어떠한지 같은 문제들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여러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또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니까요. 사도 바오로가 지금도 살아 계셨다면 우리를 찾아오시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편지를 보내신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서간들 가운데 상당히 늦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서간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을 다루는 것이라기보다, 차분하게 우리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도 사도 바오로의 회심에서 결정적인 요소였고 그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시한 주제인 의화에 관하여 가장 상세하게 다루는 서간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오로 사도의 회심을 되풀이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리사이로서 율법을 충실히 지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분명 그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짧게 말해본다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로마 1,17).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의로움이 인간에게 구원의 원천이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오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라도 피조물을 관찰함으로써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의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의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로마 3,22)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베풀어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율법 전체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구원은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셈이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려는 것은 나의 믿음보다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고, 나는 믿음으로써 그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드렸고 그래서 하느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먼저 은총을 주셨기에 내가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세우며 자만한다면 오히려 바리사이 시절의 바오로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회심한 바오로라면 자신의 회심과 믿음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93, 2026. 08월 02일



* 출처: <서울주보>, 제2624호, 2026년 8월 2일(가해)

< 이탈리아 성지 순례 >

주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 * 일시: 2026년 11월 2일 ~ 11일 (9박 10일)
- * 순례지: 이탈리아
(로마-리에티-아씨시-라베르나)
- * 영적 지도: 이웅희 루카 신부님
-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 비용: \$ 3,000 + 항공료 + 공동경비 € 100